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경희대학교

[온라인]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성 명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답안지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5. **사회계 문제지는 총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임시헌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서양 정치철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합성어이다.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은 지배 형식과 통치 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준을 달리하며 또한 오히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양대 정당의 명칭이 시사하듯, 평등과 자유 사이에 일정한 긴장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1776년의 「미국독립선언문」이나 1779년의 「미국 헌법」 어디에서도 이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이나 프랑스공화국 헌법 어디에도 이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서구 현대 국가 일반과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임시헌정」보다 몇 달 뒤인 1919년 8월에 제정되었지만, 여기서도 이 개념은 없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공화 혁명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만들어진 중화민국도 민주공화주의를 제창하지는 않았다. 민주공화주의는 우리 애국지사들이 당시 노골화하던 제국주의적 침탈의 세계사적 조류를 거슬러 일본의 국권 강탈과 국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창적인 정치철학적 이념이며, 국권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뇌를 담아낸 자생적 개념이다.

[나]

751년 7월,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군 고선지는 군사를 이끌고 현재의 카자흐스탄 탈라스강 근처에서 이슬람군과 전투를 벌였고, 크게 패하였다. 이때 수만 명의 당나라 병사가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製紙)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탈라스 전투는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퍼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양가죽을 말려 두드린 양피지를 주로 사용하던 중동 지역에는 굉장한 신상품이 나타난 셈이었다. 제지술의 전래로 이슬람 제국의 문학과 학문은 크게 발달하였다.

[다]

독일어와 같은 게르만어인 영어는 외래어·외국어에 대해 독일어가 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미 고대 영어 시절부터 라틴어 단어를 폭넓게 받아들였던 영어는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의 영국 정복 이래 프랑스어에 깊이 침윤되었다. 지배층은 오로지 프랑스어만을 사용했고, 영어는 피지배 계급의 '천한' 언어였으나, 그 천한 언어에도 지배 계급의 언어가 수혈되어 영어 어휘부에서 프랑스어/라틴어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났다.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영어는 프랑스어에 눌려 영국 영토에서도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 사건 가운데 첫 번째는 1204년에 영국이 노르망디의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왕실이 자신들의 고향인 유럽 대륙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을 프랑스 왕에게 빼앗김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어권과의 영토적 관련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건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지속된 백년전쟁이다. 이 전쟁은 영국인의 애국심을 고양시킴으로써 '천한 언어'인 영어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켰다. 백년전쟁 기간 중인 14세기 중엽에 영어는 공용어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이 중세 영어는 적어도 어휘에 있어서는 반 이상이 고대 프랑스어가 되어 버린 언어였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자기들 언어에 깊숙이 들어온 프랑스어를 배척하려 하지 않았다. 영어가 공용어가 된 뒤로도 여전히 궁중의 일부와 법정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이런 너그러움의 이유가 되었다. 영국의 법정이 프랑스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채택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말하자면 영어와 프랑스어는 영국 땅에서 7백 년 가까이 동거한 셈이다. 그래서 영어는 영국에서 공용어의 지위를 되찾은 뒤에서 프랑스어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를 수혈 받았다. 그 단어들은 정치, 법

< 뒷면에 계속 >

률, 행정, 예술, 과학, 종교 등 상부 구조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오늘날 영어 단어 가운데 비교적 고급스러운 말들은 대체로 프랑스어에서 온 말들이다.

영어는 프랑스어나 유럽의 고전어들뿐만 아니라, 어떤 외래어에도 저항을 보인 일이 없었다. 영국이 영어의 중심이었을 때도 이미 영어 속에는 세계 구석구석이 원산지인 단어들이 들어 있었고, 20세기 들어 영어의 새로운 중심이 된 미국의 영어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에서 많은 어휘를 차용했다. 그것은 영어를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수많은 언어로부터 영어에 흡수된 풍부한 어휘는 영어에 미세한 결들을 만들어 이 언어의 발달과 세련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라]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마]

걸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정,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걸프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보수성과 폐쇄성의 중심에 바로 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걸프 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통성의 상징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즉 여성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구현해 내고 있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가정 내의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하며, 이동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다. 외국 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하다. 이슬람법 샤리아(Sharī'ah)에 기초한 가족법은 혼인과 이혼에서 남성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혼인이나 이혼 문제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남녀 간의 유별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권리와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여성의 사회 참여도 교육이나 보건 등의 한정적인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의 확산은 걸프 지역의 사회 변화에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걸프 국가들은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이슬람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 검열을 통해 미디어를 통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과 통제는 오히려 검열되지 않은 뉴미디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불러일으켰으며,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은 뉴미디어가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뉴미디어 가운데에서도 일차적으로 일대다(one-to-many) 방식의 위성 방송은 걸프 지역 사람들에게 '닫힌 사회'로부터 탈출하여 '열린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으며, 이차적으로 다대다(many-to-many) 방식의 인터넷은 여성을 포함한 걸프 사회의 젊은 층에 깊숙이 침투되면서 걸프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뒷면에 계속 >

[바]

한반도의 춤과 노래의 기원은 많은 남녀가 모여 함께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는 고대 사회의 제천 의식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제전의 면모는 오늘날 풍어제나 대동굿 같은 무속 제의와 무당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의 의사와 인간의 기원을 악기와 무가를 통해 노래하고, 신의 모습이나 다양한 인간사를 춤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무속인은 연기자와 가수, 무용수라는 점에서 한반도 공연예술의 기수이자, 한류의 선조라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하여 유흥의 자리에서 예능인의 기예를 감상하려는 일반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기녀와 가객 같은 전문 예능인 부류가 파생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기녀 황진이와 작가 남영로가 만든 소설 속 캐릭터 강남홍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가무와 문예의 재능을 완벽히 갖춘 이상적인 여성 예능인상으로서 한류의 전범이자 모델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말로 이야기할 부분을 리듬에 맞추어 열거한다는 점에서 팝의 랩과 판소리의 아니리는 상통한다. 4.4조 2음보 연첩의 율격을 빠른 템포로 구연하는 코리안 팝의 특징은 판소리의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의 창에서 유사한 성격을 찾을 수 있다. 또 빠른 템포로 창송하여 엮어 내는 가사의 창법은 골계화, 장편화되어 길어진 노랫말을 빠른 속도로 엮어 내는 엮음 사설의 민요적 전통에서는 팝의 랩과 유사한 기능과 리듬감이 나타난다.

[사]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지원 규모를 104만 명으로 확대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청년고용 지원 규모가 당초 79만4천 명에서 24만6천 명 더 늘었고, 관련 예산도 4조4천억 원에서 5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청년 실업이 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만큼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좁아진 취업 기회에 좌절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2019년보다 18만3천 명 감소했다. 체감 실업률도 25.1%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과 서비스 업체에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채용을 축소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 청년 실업의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과 근로 경험의 상실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탓에 민간의 획기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5만 명이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대상이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듯, 지구촌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은 자연스럽다.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 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ore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비정부단체(NGO) 등이 나서 유상과 무상으로 많은 나라를 원조한다.

문제는 원조의 딜레마다. 좋은 뜻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원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원조는 '원조가 과연 도움이 되기나 한 것일까'라는 회의를 갖게 한다. 아프리카 남중부에 있는 잠비아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 "원조는 도움이 안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사실 원조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모요의 '원조 비관론'은 원조의 부패 구조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원조는 정부와 정부가 주고받는 형태다. 아프리카 등 후진국 정치 구조는 독재 구조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정부를 통해 지원이 되면 상당 규모의 원조가 독재자 개인 재산으로 빼돌려진다. 이 같은 부패는 원조가 실행되는 하부 단계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 원조가 정작 경제 개발이나 발전에 쓰이지 않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구람 라잔과 어빈드 서브라마니안은 "어떤 종류의 원조도 국가 경제 성장을 유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이 든 예가 바로 잠비아다. 1960년 이래 잠비아가 받은 원조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성장률은 오히려 추락했다. 원조는 또 원조 이익을 두고 정치 세력 간 극단적인 정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안정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는 큰 이권에 해당한다. 이권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갈등은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으로 악화되게 마련이다. 원조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무상 원조를 통해 많은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부족하나마 시장에서 거래되던 자국의 상품 시장이 죽게 된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다양한 상품과 의약품, 의복, 식량 등을 공짜로 지원해 주면 그나마 형성된 북한의 장마당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공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래가 될 리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은 "시혜적인 원조는 삶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 뒷면에 계속 >

[논제 1]

제시문 [가]~[마]를 같은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논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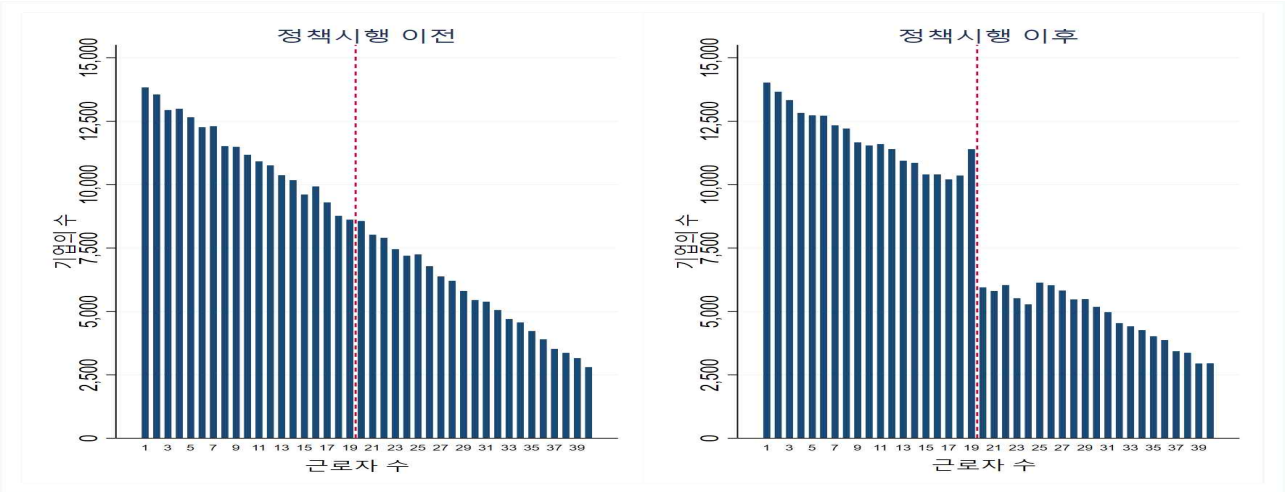
[논제 1]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바], [사], [아]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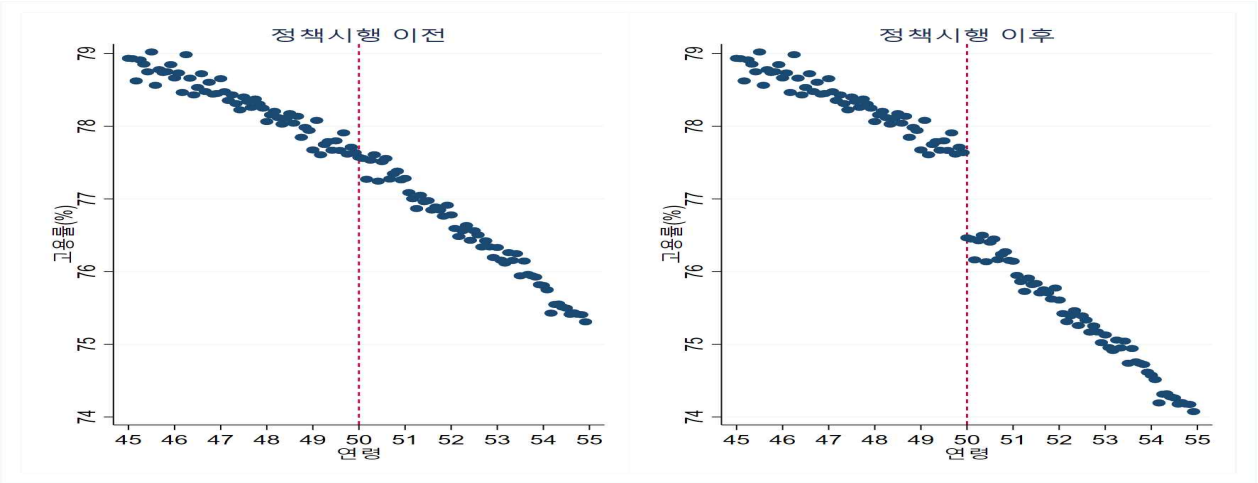
국가 A는 고용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1>은 국가 A에서 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한 전후로 피고용 근로자 규모별 기업의 분포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도표의 점선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 B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장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자료 2>는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시행 전후로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도표의 각 점은 출생 연도 및 출생 월이 같은 사람들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점선의 오른쪽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의 수혜 대상이다. 두 국가 모두 정책 시행 전후로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었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자료 1> 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전후 근로자 규모별 기업의 분포



<자료 2> 사회보장 정책 시행 전후 연령별 고용률 변화



< 끝 >